



한국-이라크 오늘 오후 6시 아시안컵 4강전

# ‘호비이락’

〈虎飛이落: 호랑이 날자 이라크 떨어진다〉

한국, 역대전적 6승 10무 2패 ‘우세’  
 이라크 주축 2명 경고 누적으로 결장  
 슈틸리케 “즐거운 축구로 결승 갈 것”

■ 한국-이라크 예상 라인업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만의 아시안컵 제패를 위한 또 하나의 고비에 도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대회 4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라크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69위로 이라크(114위)보다 45계단이나 높다. 역대 전적에서도 6승10무2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는 조별리그, 8강전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러 현재 전력누수도 심하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때 투입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전술 대형은 4-2-3-1이다. 토너먼트 전 열에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정협(상주 상무)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다. 공격진의 유기적 자리 이동과 기술을 강조한다면 조영철(카타르SC)이 이정협 대신 최전방에 나올 수도 있다.

왼쪽 윙어는 간판 골잡이 손흥민(레버쿠젠), 오른쪽 윙어는 ‘중동 킬러’ 이근호(엘 자이시), 공격형 미드필더는 ‘카타르 메시’ 남태희(레우야)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는 중원을 지켜 공수를 연결할 ‘더블 볼란테’로 나선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센터백은 김영권(광저우 헝다)과 박태휘(알힐랄),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그간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담 때문에 전반에 위축돼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노출해왔다.

슈틸리케 감독은 “4강전도 총력전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서 나서서 ‘즐거운 축구’를 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 남태희, 이근호 등 골잡이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다면 결승행 목표를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맞선 이라크도 4-2-3-1 전술 대형을 들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는 2선 공격수 알라 압둘 자라와 중앙 미드필더 야세르 카심이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다. 둘은 8강전까지 4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선 핵심요원이라서 이라크로서는 전력누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최전방에는 132차례 A매치 경력 ‘국민 영웅’ 유누스 마흐무드, 좌우 윙어로는 아메드 야신, 압제드 칼라프,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저스틴 메말이 대기 중이다. 중앙 미드필더는 사드 압둘라미르와 오사마 라시드가 짝을 이룬다. 좌우 풀백에는 두르간 이스마일과 알리드 살림, 센터백에는 살람 시키르와 아메드 이브라힘, 골키퍼에는 잘랄 하산이 포진한다. 이라크는 마흐무드의 결정력과 좌우 윙어, 풀백들의 측면 침투에 이은 크로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차두리

## 한국 ‘패스’ vs 이라크 ‘크로스’

무실점 한국, 수비 우세...이라크 골 결정력 근소한 우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맞붙는 한국과 이라크 축구 대표팀은 각각 패스, 크로스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5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조별리그와 8강전 등 4경기에서 총 1923차례 패스를 기록했다. 이는 16개 출전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라크(1846회·6위)보다 많았다.

한국과 이라크는 패스 성공률에서는 나란히 82.1%를 기록해 비슷한 위력을 나타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많은 패스를 시도해 볼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 4경기에서 무려 101차례 크로스를 시도해 이 부문 전체 3위를 달렸다. 한국은 68차례로 전체 7위를 기록, 이라크보다 눈에 띄게 적은 크로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가 좌우 윙어와

풀백들의 측면 침투를 앞세운 크로스를 주요 공격 루트로 삼고 있다는 것이 기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5골(경기평균 1.25골), 이라크는 6골(경기평균 1.5골)을 터뜨렸다. 상대 수비에 차단된 슈팅을 제외한 슈팅 수에서는 한국이 40~35로 앞섰다. 이들 슈팅 가운데 골문을 향한 유효슈팅의 비율은 한국이 55%, 이라크가 54.3%로 비슷했다. 골로 이어진 슈팅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12.5%로 이라크의 17.1%보다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공격 위력을 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는 한국이 11차례로 이라크의 5차례보다 크게 앞섰다. 그러나 한국은 결정적 기회를 골로 연결한 비율이 36.4%로 이라크(40%)보다 떨어졌다. 한국, 이라크는 둘 다 4경기에서 프리킥 골을 하나도 터뜨리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골 기회를 더 실속있게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비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한국은 무실점을 유지했으나 이라크는 4실점(경기평균 1실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태클을 71차례 시도해 80.3% 성공했고 이라크는 58차례 시도해 82.8% 성공했다. 상대 공격을 저지하거나 공을 빼앗은 횟수는 한국이 218회로 이라크 171회보다 많았다. 이라크는 반칙을 63차례 저질러 한국(54회)보다 거친 경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로카드는 한국이 7장을 받았고 이라크는 12장을 받았다. 한국에는 엘로카드 누적에 따른 4강전 결정 선수가 없다. 그러나 이라크는 2선 공격수 알라 압둘 자라, 중앙 미드필더 야세르 카심이가 경고누적으로 4강전에 뛸 수 없다. /연합뉴스

## 광주 FC, 3월 7일 인천서 K리그 클래식 복귀전

英 축구 김보경, 카디프와 결별

2015 K리그 개막 일정  
 K LEAGUE Opening Schedule

CLASSIC

3.7	3.8
14:00 전북 vs 성남	14:00 전남 vs 제주
14:00 인천 vs 광주	14:00 수원 vs 포항
16:00 부산 vs 대전	16:00 울산 vs 서울

3.21

14:00 안양 vs 수원FC	14:00 충주 vs 고양
14:00 부천 vs 대구	14:00 상주 vs 강원
16:00 상주 vs 강원	16:00 경남 vs 울산

\*서울 이랜드 FC 휴식

프로축구연맹, 경기일정 확정

전남은 3월 8일 제주와 첫 대결

광주 FC의 클래식(1부) 리그 복귀전이 3월7일 인천에서 치러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2015 K리그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7일 오후 2시 지난 해 K리그 클래식 우승팀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성남 FC의 대결로 치러진다.

클래식으로 승격한 광주는 같은 시간 원정길에 나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오후 4시에는 부산 유나이티드-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펼쳐진다.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언한 전남 드래곤즈는 8일 오후 2시 제주 유나이티드와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도 오후 2시 만나고, 울산 현대와 FC 서울의 경기는 오후 4시에 시작된다.

광주의 홈 개막전은 4월12일이며, 전북이 올 시즌 가장 먼저 광주의 안방을 찾는다. 3년 만에 다시 성사된 광주와 전남의 첫 ‘엘로우 더비’는 5월3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개된다.

K리그 클래식 12팀은 팀당 38경기씩 총 228경기를 치른다. 3월7일 시작되는 9개월의 대장정은 11월 29일 마무리 된다.

대회방식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다. 각 팀은 3라운드 로빈(3R)방식으로 정규 라운드를 치른 뒤 1~6위와 7~12위 팀이 각각 그룹 A·B로 나뉘게 된다. 이후 그룹별로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며, 팀당 5경기씩 더 치러 우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하게 된다.

스플릿 라운드 일정은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33라운드(10월 4일) 대결이 끝난 뒤 확정된다.

한편 K리그 챌린지(2부)는 서울 이랜드 FC의 참가와 함께 올 시즌 11구단 체제로 3월21일 스타트를 끊는다. FC 안양-수원 FC, 부천 FC-대구 FC 경기가 3월21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상주 상무와 강원 FC는 오후 4시 개막전을 치른다.

3월22일에는 충주 험멜-고양 Hi FC(오후 2시), 경남 FC-안산 경찰청(오후 4시) 경기가 열린다. 1라운드에서 휴식 취하는 서울 이랜드 FC는 3월29일 오후 2시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안양을 상대로 역사적인 창단 첫 경기를 치른다.

2015년 K리그 챌린지 정규 라운드는 팀당 36경기에서 40경기로 늘어나며 홈수입 체제에 따라 매 라운드 1팀씩 휴식한다.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클래식 승격 티켓이 주어진다. 2위팀은 클래식 11위팀을 상대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받아 승격에 도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김보경(26)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디프시티와 결별 갈라섰다.

카디프시티는 2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보경과 계약을 상호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보경은 무적 신세가 됐다.

카디프시티는 “김보경과의 계약 해지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면서 “지금까지 김보경이 보여준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건승하기를 빈다”고 전했다. 김보경은 2012년 7월 세레소 오사카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에 있던 카디프시티로 이적했다. 이적 첫 시즌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큰 힘을 보태며 잉글랜드 무대에 안착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령탑이 몇 차례 바뀌면서 입지가 흔들렸다.

챔피언십으로 다시 강등된 올 시즌 김보경은 정규리그 2경기와 축구협회(FA)컵 3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다. /연합뉴스